Exploring Chinese Characters through Semiotic Approach

기호학적 접근방법을 통한 중국문자학 초탐(初探)

Joo-Eun Lee¹

이주은¹

¹ Resercher, China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Korea, jel2000@hanmail.net

Abstract: It is a known fact that letters are inseparably related to culture because they reflect the social situation. Thus,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Chinese characters with this approach, ranging from Soushir's concept of language, Pierce's communication function, semiotic triangle, and Perth's symbol model. Recently, advertising content using the intrinsic iconography of text messages is increasing. Focusing on the intrinsic iconography of letters, people's perception processors immediately operate and remember, and show word of mouth effects that are used as buzzwords or spread online through hashtags. It seems that such a leap as a convergent discipline is also necessary in the Chinese literature world. Although signs with symbols, signs in real life or road signs you see when traveling are also these signs, it is also important to link the activation of the brain to language letters with signs that easily stimulate the brain and visual cells.

Keywords: Chinese Literature, Practicality, Semiotics, Interpretation, Expression, Conversation

요약: 문자는 그 사회상을 반영하기에 문화와 떼어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 문자학에서 한자를 소쉬르의 언어개념과 피어스의 커뮤니케이션 기능, 기호학 삼각형 그리고 퍼스의 기호 모형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접근 방법으로서의 분석적인 시도를 감행해 보았다. 최근 문자기호의 내재적 도상성을 이용한 광고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다. 문자의 내재적 도상성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지각인지 프로세서는 즉각적으로 작동하여 기억하고, 유행어로 활용되거나 해시태그 등으로 온라인으로 전파되는 구전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중문학계에서도 이러한 융복합적인 학문로서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실생활에서 기호나 부호로 된 표지판이나 여행 시 보게 되는 도로 간판도 이러한 부호로 되어 있음으로 우리의 뇌와 시각세포를 쉽게 자극하는 이러한 부호로 된 언어문자에 이르기까지 뇌의 활성화에 연관 지어 연구하는 것도 좋은 연구가 될 것이다.

핵심어: 중국문자학, 실용, 기호학, 해석, 표현체, 화용

1. 서론

중국어의 기초가 되는 문자언어로서의 漢字는 역사적인 발전과정에 따라 진화하고 발달해 왔다. 한자 자형의 근본이 되는 甲骨文字에서부터 진시황제 때의 小篆體,

Received: June 13, 2021; 1st Review Result: July 29, 2021; 2nd Review Result: September 14, 2021
Accepted: October 31, 2021

해서체에 이르기까지 그 발달 과정을 통시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것뿐 아니라, 언어의 근간이 되는 부호로서의 기호학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는 것도 매우 가치가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기호학적 개념과 원리와 접목시켜 보았다. 중국 운남성에 거주하고 있는 납서족(納西族)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동파문자(東巴文字)는 어찌보면 갑골문자보다 더 원시적인 형태를 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문자도 통시적, 공시적 측면에서 기호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재고해 보아야 할 필요성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피어스의 “실용론”적 관점과 퍼스기호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피어스의 “실용론”적 관점에서의 고찰

2.1 ‘기호화 과정’의 3범주

철학자이며 논리학자이자 과학자였던 피어스는 1867년 『범주들의 새로운 목록에 대하여(On a New List of Categories)』에서 ‘실용론(pragmatics)’에 입각해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의 존재론적 범주를 재구성해 모든 존재를 포괄할 수 있는 3가지 보편범주로 분류했다.

피어스는 ‘대상’을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생기는 정신적인 ‘직접적 대상(immediate object)’과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실제적 대상(dynamic-real object)’을 구별한다. ‘직접적 대상’은 의식 속의 ‘내적’ 대상이며, 실재하는 역동적 대상은 외부 세계의 ‘외적(extern)’ 대상이다. 즉 ‘직접적 대상’은 소통 과정에서 기호 사용자가 지니는 ‘관념(idea)’으로서, 해석자가 이 ‘직접적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실제적 대상’을 이전에 경험했기 때문이다[1].

[그림 1] 피어스의 기호학 삼각형

[Fig. 1] Pierce's Semiotic Triangle

2.2 커뮤니케이션의 필수 요소 6가지

기호학을 커뮤니케이션의 관계에 한정해서 보자면 기호학에 대한 관심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역으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 때문에 기호학을 연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기호학 서술에 있어서 움베르코 에코처럼 인식론적 관심을 바탕으로 기호 자체와 코드의 문제로부터 논의를

시작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매체학 등의 사회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일반에 관한 논의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2].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야콥슨의 관심은 언어학자로서 소쉬르의 영향을 반영하듯, 언어 중심적이며, 인식론적이다. 그는 『언어학과 시학』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불가결한 모든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언어의 다양한 모든 기능에 관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 언어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윤곽을 얻으려면 모든 발화, 모든 언어행위를 이루는 구성요소들을 개관해야 한다. ‘발신자(addresser)’는 ‘수신자(addressee)’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하나의 메시지가 작동하려면 그것이 언급되는 ‘문맥(context)’이 필요하다. (이는 ‘현실적 지시대상(referent)’이라는 좀 애매한 술어로 불리기도 한다). 이것은 수신자가 포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언어의 형식을 취하든지 아니면 언어화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다음에 필요한 ‘코드(code)’는 완전하게, 아니면 적어도 부분적으로 발신자와 수신자(다른 말로는 의미 부여자(encoder)와 의미 해독자(decoder)에게 공통된 것이라야 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발신자-수신자 간의 물리적 회로 및 심리적 연결이 되는 ‘접촉(contact)’으로서 이는 양자가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해서 이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요소이다. 이들 모든 요소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3].

[그림 2] 야콥슨의 커뮤니케이션 요소들

[Fig. 2] Jacobson's Communication Elements

2.3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6가지

야콥슨은 메시지가 지시대상, 즉 문맥을 향할 때 지시적, ‘구체적 단순지시의(denotative)’ 인식 기능에 수행하며, 메시지의 주된 기능은 여기에 있다고 한다. 문장이 특정 ‘문맥’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은 의미론의 기본적인 인식에 속한다. 가령 학생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다른 친구가 오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여우다”라고 했다고 가정해 보자. 학생들이 “여우”가 누구를 지시하는지를 안다면, 그들을 그것의 의미를 아는 것이 된다. 그래서 야콥슨은 ‘메시지’가 ‘지시대상’을 향하는 것을 ‘메시지’가 ‘문맥’이라는 특정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의미를 획득하는 것과 동일시한다.

야콥슨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에서 메시지의 ‘지시적 기능(function referentielle)’은 ‘문맥’에 관심이 집중될 때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발신자’에 초점이 맞춰져, 그가 ‘메시지’를 어떤 태도로 전달하는가에 관심이 집중될 때 커뮤니케이션에서 ‘감정 표시적 기능(function expressive)’이 강하게 나타난다. 반면 ‘수신자’의 태도와 반응에 관심을 집중할 때는 ‘명령적 기능(function conative)’이 강할 때이다[3].

야콥슨이 커뮤니케이션의 필수적 요소로 지정한 6 가지 요소 중 남은 것은 “접촉” 과 “코드”, “메시지” 자체이다.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발신자’가 다른 어떤 것보다 ‘접촉’에 관심을 집중할 때는 메시지의 전달이나 표현보다는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지속시키려는 의도가 강할 때이다. 이때 커뮤니케이션은 ‘친교적 기능(function)’을 우세하게 행한다. 의례적 인사나 다양한 비 핵심적 테마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시키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4].

3. 퍼스의 기호학적 관점에서의 고찰

한국에서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조직된 기호학회에 참여하는 수많은 학자의 전공은 매우 다양하다. 이런 현상은 기호학이 현재 뚜렷한 독자적인 학문영역을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해도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오늘날 ‘통섭’이 화두가 되어 학문 간의 융합을 추구하는 시점에서 기호학의 이런 특성은 역설적으로 이 학문의 엄청난 실용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철학을 기호학으로 한다, 문학 연구를 기호학으로 한다, 심리학을 기호학으로 한다는 말이 성립한다는 것은 ‘기호학이 기호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대상’에 초점을 맞춘 정의가 아니라, ‘기호로 하는 학문’이라는 ‘도구’ 즉 방법론에 초점을 맞춘 정의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일정한 방법론이 여러 학문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서로 분리된 기존의 여러 학문을 연결하는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1 퍼스의 기호 모형

퍼스는 “기호 혹은 표상체는 어떤 측면 혹은 능력에서 누구에게 어떤 것을 나타내는 어떤 것”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에는 ‘어떤 측면 혹은 능력에서’와 같은 전제가 있고 또 특정한 ‘누구’에게라는 기호의 수신자를 지정한다. “기호는 그 전달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등가적인 기호 혹은 그보다 더 진전된 기호를 만들어낸다”고 퍼스는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호 수신자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호의 생산이 문제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퍼스는 이렇게 만들어진 기호를 ‘해석소(interpretant)’라고 부른다. 이 낱말이 함축하듯이 기호작용은 곧 해석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점 역시 소쉬르의 기호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퍼스는 “그 기호는 대상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이 지점에서 퍼스의 기호학은 결정적으로 소쉬르의 기호학과 갈라진다[5].

소쉬르는 기호가 나타내는 대상을 ‘의의’라고 했는데, 퍼스의 기호학에서 말하는 대상은 그야말로 현실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다. 어디선가 연기가 난다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연기의 의의는 연기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아니다[5].

그것은 의미체계 안에서만 존재하는 연기이고, 그것이 구조주의가 다루는 영역의 한계이다. 그러나 퍼스는 기호학에서 ‘연기가 난다’고 할 때 그 연기는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연기를 말한다. 그것은 어디선가 불이 났거나 누군가가 밥을 짓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피우는 바로 그 실제의 상황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 ‘연기’라는 기호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퍼스는 기호가 대상을 나타낼 때 “모든 측면에서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관념에 의거해 나타내는데, 그것을 ‘표상체의 기반(ground)’ 이라고 부른다.” 고 말한다. 이 ‘기반’ 이라는 개념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지금 연기가 나는 상황의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농촌의 저녁무렵’ 이라는 시간과 ‘한가로운 농가’ 라는 공간에 대한 나의 관념에 바탕을 두고 ‘밥을 짓기 위해 불을 땀 것’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5]. 우리가 텍스트를 해석할 때 언제나 입버릇처럼 말하는 맥락(context)과 같은 것이 아닐까?

3.2 객관적 관념론

퍼스의 기호 개념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먼저 인간의 마음이 개입되었다는 점이다.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다루는 학문을 ‘인식론(epistemology)’ 이라고 할 때 분명히 퍼스의 기호 개념에는 이런 인식론적인 함의가 있다. 다시 말해 기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셈이다. 연기를 보고 우리가 어떤 해석 행위를 할 때 그 현상을 해석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통해 해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이기 때문에 퍼스의 기호학을 “객관적 관념론” 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6].

소쉬르 역시 얼핏 기호학이 심리학적인 성격을 띠 수도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기표와 기의의 관계를 자의적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실제로는 그런 심리적 성격을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

퍼스 역시 인간의 마음에 대해 말했지만,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개입하여 만들어내는 기호의 작용임을 생각하면 소쉬르나 퍼스 모두 인간의 심리나 인식보다는 기호 자체의 원리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퍼스의 기호 개념에서 놓쳐서는 안될 것이 바로 기호가 ‘생산된다’ 는 개념이다.

직접 가서 확인하는 순간, 연기는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기호 자체의 기능을 상실하고 만다. 퍼스의 주장은 적어도 기호로 존재하는 순간에는 최종적인 해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퍼스는 대상이나 해석소를 여러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런 해석소는 텍스트 해석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어떻게 기호학적으로 해결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6].

해석 이전에 존재하는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해석을 통해 의미가 구현되느냐는 문제인데, 퍼스의 기호작용이 이 모순되는 듯한 두 가지 해석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마디로 모순되는 해석이 실상은 기호작용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모든 해석소가 형이상학적인 본질의 모습을 띠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 기호작용의 역동적인 진행 자체가 기호이다 보니, 굳이 어느 하나로 귀결되는 의미, 다시 말해 환원적인 의미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점은 퍼스의 기호학의 독창적인 면을 뚜렷하게 드러내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3.3 중국문자학에서의 고찰

중국의 한자를 문자학적인 측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기호학적 모형으로 설명해 보고자 시도해 보았다. 접근 방법이 비록 용이하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었다.

아래의 내용들을 잘 분석해 보면, 퍼스의 기호 모형과 야콥슨의 커뮤니케이션 요소들(그림 2 참조)으로 설명할 수 있고, 화용론적인 방법으로 실용론적인 입장에서 한자를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앞으로 이러한 소쉬르의 언어개념에서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의 도약인 퍼스의 관념론에 이르는 분석을 해보고 퍼스의 기호 모형에 대입시켜 해석해 볼 수 있다.

1) 중국어의 한자 중에 “貴 (귀하다 귀)”를 살펴보면, 갑골문에서는 흙 속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아내어 보니 조개였다고 한다. 당시 조개는 물물교환의 수단으로 화폐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비싸다”는 뜻으로 의미가 확장되었음을 알수가 있다[6].

2) “呌(부르짖다 𠂔)”에서는 한국에서는 부르짖다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중국어에서는 이름을 묻고 답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이를 해석할 때, 우리모두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나를 알아달라고 부르짖는 정도의 인정에 메달라 있음을 느낄 수 있기에 마음의 치유로 접근해서 해석해 보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

3) “姓(성씨 성)”에서는 중국의 고대사회가 모계중심사회임을 알 수 있다. 현재는 거의 대부분 아빠의 성을 따르지만, 중국 고대 사회에서는 엄마 성을 따랐음을 엿볼 수 있는 한자이다. 지금도 중국 운남성 남서쪽의 문화에서는 이러한 모계중심사회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야콥슨에 의하면 발화자가 ‘메시지’를 어떤 태도로 전달하는가에 관심이 집중될 때 커뮤니케이션에서 ‘감정표시적 기능(function expressive)’이 강하게 나타난다. 반면 ‘발신자’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수신자’의 태도와 반응에 관심을 집중할 때는 ‘명령적 기능(function conative)’이 강할 때이다[4].

유립 기호학의 창시자인 소쉬르는 언어기호 중심의 기호학 이론을 이분법으로 전개하였다. 소쉬르는 문자를 언어의 소리를 단순히 표기하는 이차적 코드의 기능으로만 접근했다. 문자의 개념을 음성언어를 재현하거나 모방하는 것으로 단순화하여 문자의 기능을 협소하게 접근하였다.

음성중심주의(音聲中心主義)는 정신과 물질을 대립적으로 보는 관점이다. 말과 사상을 담고 있는 언어가 문자보다 우위에 있으며, 문자는 언어를 단순히 기록하는 코드로서 구술언어의 기호라고 간주했다.

실제로 소쉬르는 언어 기호에 있어 기표(記標)를 청각적 이미지로 기의(記意)를 개념으로 규정하는 관계 속에서 기호 생성을 설명했다. 기표는 기호형태이고 기의는 기호내용이다. 예컨대, 동물 馬(말 마)는 말의 청각적 이미지인 기표와 말의 개념이 조합하여 말이라는 언어기호가 생성된다. 상형문자로서 언어기호 말 마(馬)는 말의 모양(머리, 갈기, 꼬리, 네 다리)을 연상시키는 청각적 이미지가 기표(記標)이고, 포유류에 속하는 말이란 개념은 기의(記意)로, 기표와 기의가 조합하여 말 마(馬)라는 언어기호가 생성된다는 논리구조이다[4].

테리다는 문자학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문자의 철학적 세계관을 고찰하였다. 그는 언어중심의 언술작용에 관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문자의 기능이라는 관점을 버리고, 문자 쓰기의 파생물이 음성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음성 언어 관점에서 하나의 기표가 하나의 기의로 대응한다는 소쉬르의 언어 기호 관점을 부정하고, 하나의 기표가 다양한 기의로 의미를 그릴 수 있다는 차연(difference)의 개념을 제시한다. 소쉬르의

언어기호 관점을 음성중심주의로 규정하고 문자기반으로 인류의 문명을 설명하고 해독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인류문명사에서 오랫동안 언어기호의 이차적 코드로 간주되었던 문자의 관점과 기능을 확장하자고 했다. 그의 주장은 문자가 구술언어의 기호라는 관점을 배제하고 문자 중심의 문명사를 접근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7].

테리다의 문자학은 목소리 중심의 듣는 감각에 집중한 언어의 세계관에서, 쓰고 기록하는 시각과 촉각이 작동하는 문자의 세계관으로 전환하는 담론이다. 한자로 문자(文字)의 글월 문(文)은 청각에서 촉각으로의 전환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상형문자 글월 문(文)은 글이나 문장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갑골문에서 사람이 두 팔을 벌리고 가슴에 문신을 그린 형상을 하고 있다. 문자는 인간의 감각인 촉각을 이용해 쓰는 행위가 중요함을 알리고 있다. 팔을 벌리고 무언가를 기록하고 그리는 쓰기의 행위가 문자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것이다.

또한 문자 자(字)는 집 면(宀)과 아들 자(子)가 결합한 모습으로, 집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진시황 시대에 쓰기 시작한 자(字)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가족이 만들어지듯이 문(文)과 문(文)이 조합하여 새로운 문자와 문장이 끊임없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자 문자(文字)의 어원과 파생된 의미 속에는 테리다의 문자중심주의 세계관을 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청각의 소통체계에 기초한 언어(言語)의 개념에 반하는 한자 문자(文字)의 개념에는 시각과 촉각의 감각을 확장하는 문자중심주의 세계관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8].

최근에는 한자의 도상, 상징, 인지의 기능을 기업의 광고홍보 전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자문화권의 라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주) 농심의 브랜드 매울 신(辛)라면은 한자의 도상성과 상징성을 활용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辛(매울 신)은 라면의 매운 맛을 연상시키는 공감각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라면의 매울 신(辛)을 지각한 소비자들은 辛 라면의 맛을 연상하면서 제품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상형문자 매울 신(辛)자는 ‘맵다’, ‘고생하다’, ‘괴롭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매울 신(辛)의 원형은 노예의 몸에 문신을 새기던 도구를 형상화한 문자로 노예의 삶이 괴롭고 고생한다는 것을 매운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8].

문자기호학 차원에서 흥미로운 분석이 가능한 시각화 문자의 예를 보면, 식당의 로고인 시각화 문자 아래에 배치한 환미사고(還味思考)의 문자유희가 흥미롭다. 중국인에게 잘 알려진 사자성어 환위사고(換位思考)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의미를 가진 한자로 문자놀이를 하고 있다. 환위사고(換位思考)에서 자리 위(位)를 맛미(味)로, 생각할 (考)를 말릴 고(烤)로 변경하여 식당의 메뉴와 맛 그리고 서비스 정신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8].

[그림 3] 환미사고(還味思考)

[Fig. 3] To Think Again

매운 카레인 아비꼬는 100 시간을 정성 들어 준비한 카레라는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한자 일백 백(百)을 시각화 문자로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갑골문에는 일백 백(百)은 지붕에 매달린 말벌의 집을 형상화한 것이다. 말벌의 집에 100 마리의 꿀들이 집을 만드는 것처럼 100 시간의 정성을 들여 만든 카레라는 비유를 하고 있다[8].

[그림 4] 백년카레

[Fig. 4] 100 Years of Curry

갑골문의 어원론에서 문자(文字)는 쓰고 기록하고, 새로운 글과 문장을 무한히 생성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문자(文字)는 진시황 시대에 등장한 글자로 진시황은 자신의 업적과 역사를 문자(文字)로 기록하기 위한 것이다. 즉 진시황 시대에 등장한 문자(文字) 속에는 쓰는 행위인 촉각과 시각의 감각적 행위를 전제하고 있다. 어쩌면 진시황 시대부터 중국은 문자중심주의 세계관을 꿈꾸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하영삼은 한자가 알파벳 문자와는 달리 형체 속에 뜻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원래의 뜻에서 확장되는 파생 의미 역시 대단히 체계적이며 논리적인 법칙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9].

그의 주장은 한자가 논리적이고 인지적인 문자기호(文字記號)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학적 차원의 한자의 형체는 시각적 모양새를 담고 있는 것이고, 의미의 확장과 파생은 모양새를 보고 연상적 의미를 도출하는 인지적 활동의 결과라는 것이다. 한자가 청각 중심의 언어기호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더불어 한자 쓰기의 촉각과 시각의 감각적 활동을 요구하는 문자기호라는 것이다[9].

문자기호학을 연구하는 백승국은 언어가 소리를 모방해서 발달했듯이, 문자는 실제 존재하는 사물의 도상적 모티브를 중심으로 발달했다고 하였다[10].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 사람들은 한자의 도상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림문자 또는 상형문자인 한자의 원형(元型)은 자연환경, 인간의 움직임, 사물 등을 모티브로 한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한자를 지각하고 인지하는 공통의 인지적 프로세스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에는 문자기호로서 한자의 도상성이 의미와 연결되는 한자 의미망(意味網)에 저장되어 있다[11]. 인지 의미론의 개념인 의미망(semantic net)은 한자의 도상성과 인지기능이 한자 문화권 사람들의 뇌 속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다. 사람들이 문자를 보고 의미를 연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의 주제들이 범주화되어 의미망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각형에 담긴 한자를

지각하는 순간 부수의 도상성이 의미망의 의미와 연결되는 연상 작용이 작동하여 한자의 의미작용을 해석한다는 것이다.

4. 결론

문자는 그 사회상을 반영하기에 문화와 떼어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 문자학에서 한자를 소쉬르의 언어개념과 피어스의 커뮤니케이션 기능, 기호학 삼각형 그리고 피어의 기호 모형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접근 방법으로서의 분석적인 시도를 감행해 보았다. 중문학계에서도 이러한 융복합적인 학문로서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특히 4차혁명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러한 시도가 매우 유용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 사람들은 한자의 도상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림문자 또는 상형문자인 한자의 원형(元型)은 자연환경, 인간의 움직임, 사물 등을 모티브로 한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한자를 지각하고 인지하는 공통의 인지적 프로세스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에는 문자기호로서 한자의 도상성이 의미와 연결되는 한자 의미망(意味網)에 저장되어 있다[9]. 인지 의미론의 개념인 의미망(semantic net)은 한자의 도상성과 인지기능이 한자 문화권 사람들의 뇌 속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다. 사람들이 문자를 보고 의미를 연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의 주제들이 범주화되어 의미망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각형에 담긴 한자를 지각하는 순간 부수의 도상성이 의미망의 의미와 연결되는 연상 작용이 작동하여 한자의 의미작용을 해석한다는 것이다[10].

중국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이모티콘을 시각화 문자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청화대학교 천난(陳楠)교수가 젊은 세대들을 소비층으로 제작한 갑골문 이모티콘은 한자의 시각화가 중요한 소통의 도구임을 보여주고 있다. 갑골문을 적극 활용하여 제작한 문자가 WeChat 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갑골문에 등장하는 소, 양, 토끼, 강아지 등을 모티브로 재미요소가 접목된 시각화 문자를 선보이고 있다[11]. 즉 갑골문에 재미와 의미를 접목하여 사람들의 도상과 인지기능을 작동시키는 문자유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실생활에서 기호나 부호로 된 표지판이나 여행시 보게 되는 도로 간판도 이러한 부호로 되어 있음으로 우리의 뇌와 시각세포를 쉽게 자극하는 이러한 부호로 된 언어문자에 이르기까지 뇌의 활성화에 연관지어 연구하는 것도 좋은 연구가 될 것이다.

References

- [1] Peirce, S. Charles, *Phanomen und Logik der Zeichen*, hg.v. H. Pape, Frankfurt a. M. 1983. (=Peirce 1983)
- [2] Jeon Dong-yeol, *Semiotics*, Yonsei University Press, (2005)
- [3] Roman Jakobson, Translated by Kwon Jae-il, *Theory of General Linguistics*, Minumsa, (1989)
- [4] Jeon Dong-yeol, *Semiotics*, Yonsei University Press, (2005)
- [5] Song Hyo-seop, *Humanities, Speaking of Semiotics*, Lee Soo-p publishing, (2013)

- [6] Lee Joo-eun, Fun Story of Chinese Character, Nanumsa, (2019)
- [7] Jacques Derrida, Kim Seong-do, Grammatology, Minumsa, (2010)
- [8] Shim Hyun-joo, History of Chinese characters, Symbolic Chinese Character's Shape and Cognitive Function, Reversal, (2020)
- [9] Ha Young-sam, Yeonsanghanja, book publishing 3, (2019)
- [10] Baik Seung-kuk, Recherche sur la sémiotique de l'écriture et le contenu interactif, Semiotic Inquiry, (2016), Vol.49, pp.83-106.
- [11] Shim Hyeoun-joo, Meng Su, Baik Seung-kuk, A Study on the Iconicity of Chinese Character, The Journal of Chinese Character Studies, (2019), No.25, pp.17-34, DOI: 10.14772/CSCCK.2019.25.17